

# EC HO

vol. 16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 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우혜정 Woo hye jung

## 편집위원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손민경 Son min kyeong

Editor - 김윤지 Kim yoon ji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Design - 이다혜 Lee da hye

Design - 전명주 Jeon myeong joo

Photo Editor - 이경연 Lee kyeong yeon

# VOL16 CONTENTS :

## E

06 이달의 주의자\_VOL.16

콜라리즘

## C

10 알바공고분해석본

우리의 보람찬 방학을 위하여!

12 당신이 켄 에어컨에 한 생명이 사라진다면?

15 우리가 특별해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순간들

## H

18 ECHOPATCH

상상 속 방학 vs 현실 속 방학

20 6월, 나의 삶은 ( )을 알기 전 후로 나뉜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알게 된 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23 지난 1학기 잊지 못할 그 사건

## O

26 가성비는 가라!

28 눈물버튼

눈물버튼을 자극하는 드라마 \* 웹툰

30 아보카도 요리 레시피

33 당신을 위한 FESTIVAL

34 여름 싫어!

여름 대비 아이템

36 술술 흘러들어가는

37 여름 밤 듣기 좋은 뉴에이지

39 이색 아이스크림 추천

42 GET READY WITH E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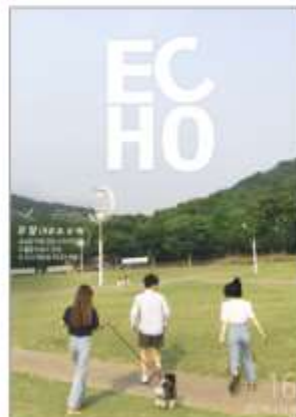
백설공주가 아니어도 괜찮아/PVC를 아십니까?

49 현상소

에코가 드리는 매달의 필름 선물

50 오자토크

나에게 6월이란





6월  
모두의 한 해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만,

중심을 잡고 있어서인지 우리에게는  
좀 더 아무렇지 않고 가볍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모래가 빠지듯  
우리의 유월은 잡을 수 없이  
빠르고 가볍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ECHO는 흘러가 버리는 유월이 아쉬워  
좀 더 붙잡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번 호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ECHO 16호와 함께 한해의  
묵직한 중심을 잡고 있는 6월  
운슬처럼 반짝이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

E

*engaging*

---



# 이달의 주의자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이달의 ISM人

VOL.16



콜라리즐

“콜라란 그냥 마시고 싶다. 탄산음료다.  
이런 별 의미 없는 말들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콜라를 빼는 건 힘들 거 같아요.**”

### 16호 주역자 '콜라리즘' 장언대



콜라를 즐겨 마신 게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탄산음료를 싫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다들 한 번쯤은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었고 맛있다고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꼭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봐요.

다양한 탄산음료 중에서도 굳이 콜라를 먹는지 일단 사이다랑 비교를 해보자면  
사이다가 아닌 콜라인 이유는 진짜 단순한 이유인데요.  
사이다가 주는 청량함 그런 걸 제가 딱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콜라가 더 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사람들은 그럼 펩시냐? 코카콜라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둘 브랜드 중 하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마시는 편인데,  
만약 두 개가 다 있다면 저는 펩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어요.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탄산은 덜하지만, 더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인지도가 높아서 더 맛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펩시콜라가 더 맛있습니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콜라를 제일 많이 사먹은 곳이 있는데요.

사회과학대학 2층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사과대학교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콜라를 사먹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 종류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물을 마시기 위해

2층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뽑고 바로 옆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는 루트를 제가 제일 선호하기 때문이죠.

사회과학대에 있는 매 수업마다 그렇게 하는 편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판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콜라를 좀 더 맛깔나게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자고 한다면?

1. **운동하고 마시는 콜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겠죠.
2. **강의시간에 마시는 게 탑2**입니다. 딱히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3. **영화관에서 마시는 콜라**가 3번째입니다.  
· (TMI인데 영화관에서 항상 저 혼자 마시기 위해 콜라 라지 사이즈를 구매합니다)
4.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마시는 콜라**입니다.  
· 장소는 기름진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장소예요
5. **과제를 하면서 마시는 콜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콜라로 풀어버리는 거죠.



남들보다 콜라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마셔요.

'햄치멋' 처럼 '콜치멋'을 묻는다면 한 번에 큰 페트병 3병 조금 넘게 마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콜라는 다섯자로  
표현한다면  
'살이많이찌'  
입니다.

---

C

*communicating*

---





# 알바 공고문 해석본

기나긴 3개월이 지나고, 방학이 찾아왔다.  
9월 개강을 후회 없이 마주하기 위해  
무수한 계획을 떠올리는 당신.  
혹시 그 계획 중에 알바도 포함되어있는가?  
알바 공고문을 마주한 당신을 위해  
에코가 알바 공고문 해석본을 준비했다.

우리의 보람찬 방학을 위하여!

# 우리의 보람찬 방학을!



공고문	해석본
<p>힘들지 않아요 별로 힘든 일 없어요</p>	<p>= 육체는 덜 힘들어도 너의 정신은 힘들 것이니 <b>각오해라.</b></p>
<p>열정 있고 끈기 있는 사람 환영</p>	<p>= 일도 힘들고 손님들도 만만치 않으니 <b>각오해라.</b></p>
<p>가족 같은 분위기</p>	<p>= 일하는 동료끼리 수더분하게 지내요. 근데 좀 무례할 수 있으니 <b>각오해라.</b> /진짜 가족 경영</p>
<p>경력 있으신 분 우대</p>	<p>= 경력 있는 사람만 연락하세요. 초보자는 잘 거절할 수 있으니 <b>각오해라.</b></p>
<p>개념 있고 출근만 잘하면 됩니다</p>	<p>= 과연 그럴까? <b>각오해라.</b></p>
<p>편의점</p>	<p>= 직영점 아니면 최저 시급 받기 힘드니 <b>각오해라.</b></p>

# 당신이 켜 에어컨에 한 생명이 사라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 살고 있다. 뜨거운 여름과의 전쟁으로  
우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켜다. 하지만 이 에어컨이 한 생명을 죽인다면  
당신들은 에어컨을 켤 수 있을까?



에어컨에는 에어컨 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이 프레온 가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가스가 공기 중에 분해가 되지 않고 바람이나 기류에 의해 성층권까지 올라가서는 자외선과 만나 분해되면서 염소원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염소가 원자상태에서 아주 강한 산화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일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엄청난 온실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그로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 온도 상승은 북극의 빙하를 녹이는 주원인이 된다. 지난해 10월 얼음의 양이 평균보다 28.5%나 줄었다고 하며 덴마크 기후연구소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극 고위도의 기온이 평균 보다 20도나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줄어든 얼음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2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북극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특히 북극곰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북극의 여름에 해당하는 해빙기가 1달 이상 빨라지며 길어진다  
북극의 얼음면적도 1/4이상 줄어들면서 주식인 바다표범을 사냥할  
곳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북극곰 수는 2만마리에서  
3만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북극곰은 생태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위에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그래, 에어컨을 켜지말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에어컨을 키더라도 이 에어컨을 통해 내가 한생명의 보금자리와  
사냥터를 없앨 수 있다는 어느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에어컨의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 진행 상태에 살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북극곰이라는 한 생명이 죽어나가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북극곰처럼  
우리의 보금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다.





# 우리가 특별해지는 시간

## 그저 흘러가는 순간들

'순간'이라는 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 시작과 끝의 경계는 모호하고 추정할 수 없다.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이 아니라서 될 수 있으면  
 배제되는 단어이지만, 세상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분명한 형태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것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1분 1초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모름 불분명한 순간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별함을 부여하고자 할 때 '순간'이라 말한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도,  
 가슴이 저린 슬픔을 느꼈을 때도,  
 우연이 행복이 될 때도, 우린 '순간'이라 말하며  
 가슴 깊이 간직할 기억으로 만든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 중 하나는  
 엄마와 단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오랜만에 나의 머리를 맡아주는  
 엄마의 모습을 거울로 본 순간이다.  
 타인에게 이 기억을 소개할 때  
 '2016년 2월, 오전 8시'라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그 순간은**  
**단순히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시간이 아닌,**  
 '순간'으로 표현될 따뜻한 손의 온도와  
 머리칼을 빗는 작은 소리, 주황빛의  
 따뜻한 조명이 주로 이루는 추상적이고도  
 감정적인 것이라. 내가 간직하는 이것은 절대  
 2016년 2월, 오전 8시로 담아낼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영화 '아비정전(1990, 홍콩)'에서 주인공 아버지는 수리진에게 이런 말을 한다.

'4월 16일. 3시 일분전. 당신과여기 같이 있고

당신 덕분에 난 항상 이 순간을 기억하겠네요.

이제부터 우린 친구예요.

이건 당신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죠. 이마 지나간 과거니까.'

극장 매표소 안, 코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마주 선 채 느껴지는 숨,

적막한 가운데 움직이는 시계 초침 소리,

긴장감 가득한 그때 그 모든 걸 아버지는 순간이라 말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돼서 쳐다봤던 눈빛도.

당신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며 뱉었던 그 말도,

우리가 같이 보낸 그 일분의 시간도,

모두 내가 간직해야 할 '순간'이라 말한다. 그저 낭만적일 수밖에.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편적인 시간만 담아내는 것이 아닌,  
 그 시간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합쳐져 '순간'이라 불린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정의하기 힘든 무언가로 만들어낸다.  
 그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어서 일수도,  
 말문이 막혀서 일수도 있지만,  
 딱히 순간이 아니고서야 그것들을  
 멋들어지게 담아낼 방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저 흘러가는 순간에 맡겨진 채 감당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도 멋지다는 것을,  
 우리는 논할 필요가 있다.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H

hosting

---

# ECHOPATCH

모든 궁금증에는 에코가 있습니다.  
실오라기 없이 파헤칠 **에코패치**.

## Vol 16, 상상속 방학 VS 현실속 방학

숨 가쁘게 달려온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를 찾아온 종강!

길고 긴 방학을 맞이하며 우리는 상상으로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짰다. 하지만! 절대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방학.

여기, 첫 긴-방학을 앞둔 새내기 와 이미 두 번을 겪어본 현생이가 있다. 아들을 만나보자!



###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소미**: 안녕하세요 17학번 박소미입니다. 헤헷

**장준녕**: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8학번 새내기!! 1학년 장준녕입니다!!

### 2.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박소미**: 실 수 있어서 좋긴하지만 사실 계절학기가 남아있어서 슬픈 마음이 더 큼니다. 계절학기 끝내고 백수처럼 지낼거예요.

**장준녕**: 고등학교보다 대학교의 방학이 더 길다보니 아무래도 그만큼 기대가 더욱 더 많아지고!!

벌써 들뜨기 시작한 거 같아요! 어서 방학이 오면 좋겠습니다 ㅎㅎ



### 3. 방학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박소미: 계획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늦게 일어날 겁니다.

씻는 건 사치고 바로 밥 먹어야죠. 밥 먹고 나면 토익 공부라도 해볼까 싶지만 휴대폰만 볼 저를 알아요.

분명 1학년 때는 알바도 해보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제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

장준녕: 학기 중에는 너무 바빴어서 종강 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요, 봉사활동도 가고 싶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어보고 싶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고, 제가 술을 마시면서 살이 많이 찌가지고... 다이어트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도 따고 싶고 방학 동안 나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고 싶습니다!

### 4. 잘 지킬 자신 있으세요?

박소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거예요.....

장준녕: 계획한 게 생각보다 많아서.. 이것을 다 지키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왕 계획해본 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ㅎㅎ

### 5. 서로의 계획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박소미: 당신은 집 거실에서 티비 여행을 하게 될 것이며 방청소라는 봉사를 하고 방학때도 빈털털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정말 새내기다운 첫 방학 계획이네요. 못 지켜도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 학교에 적응하라 공부하라 지쳤던 자신을 위해 푹 쉬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준녕: 물론 저도 고등학교 방학 전에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했으나 계획한대로 지키지 못해서 헛내기 선배의 말이

공감이 안가는 건 아니지만..!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마음가짐을 많이 바뀌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 6. 후시 계획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박소미: 계획을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방학이 시작되면 괜히 쫓기는 마음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거 같긴해요.

하지만 오래 못가겠죠.. 또르륵.

장준녕: 계획을 변경한다기 보다는.. 계획한 게 적은 편이 아니어서 계획한 것들을 모두 지키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계획한 것들 중 3개 이상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마지막으로 방학하면 당분간 못 만날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박소미: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개강때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갈게... 응... 진짜...

장준녕: 친구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없고 본가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자주 못 만나겠지만 연락 많이 하고 방학 즐겁게 보내면 좋겠어 ㅎㅎ안뇽!



6월, 나의 삶은  
( )을  
알기 전 후로 나뉜다.

아무렇게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자그마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가며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은 우리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길로 안내하기도 한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알게 된 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 “ 화장품 ”

### 화장품은 여성의 코르셋?

일리는 있지만 나의 삶은 화장품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 아토피가 심했던 나는 화장품을 알기 전에는 울긋불긋하고 각질이 잔뜩 일어난 얼굴이었다. 그래서 화장품을 알기 전의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화장품에 관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색조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에 발을 들이면서 피부 자체를 가꾸는 일에 흥미가 생겼다.

그 후, 꾸준한 화장품 사용으로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되면서 화장을 한 얼굴뿐만 아니라 깨끗한 민낯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 오늘도 얼굴에 스킨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 “ 연어 ”

### 생선이 거기서 거기지 뭐

연어를 알기 전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정도다. 적당한 기름기에 부드러운 식감, 심지어는 몸에도 좋아서 마음껏 먹어도 안심이다.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숨 막히는 매력이 있고 얇으면 얇은 대로 살살 녹아버리는 연어를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연어를 알고 난 뒤 아침점심저녁 메뉴고민이 사라졌다. 취미도 숨겨진 연어 맛집을 아가는 것이 되었다. 연어와 돈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 오늘도 연어와의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내 적성에 안 맞아.

쌓을수록 허물어지는 모래성을 쌓는 기분으로 인생을 버티던 나에게 찰리 채플린의 명언은 큰 힘을 발휘했다. 이 명언을 알기 전에는 웃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고 울 때는 엄살을 피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삶은 비극이면서 희극이다. 그래서 희극이 우리를 웃게 하고 비극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 것처럼 내 삶도 롤러코스터 같다는 것을 깨닫자 한결 편해졌다. 당신에게도 기대어 웃거나 울고 싶은 문장이 생기기를.

- 오늘도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지난 학기  
잊지 못할  
그  
사건



The last semester , an unforgettable incident

---

벌써 한 학기에 마침표가 찍혀가고 있을 무렵 사람들은 이번 학기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마련이다.  
후회한 일, 잘한 일, 아쉬운 일, 뿌듯한 일. 우리에게는 모두 잊지 못할 사건이자 추억이다.  
ECHO는 이번 학기 잊지 못할 일을 한 학우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

지난 학기  
잊지 못할  
그  
사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최건입니다.

- 일 학기 잊을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스스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습니다.

- 영상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왜 다큐멘터리를  
고집 했나요?

영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저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장르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고집했습니다.

- 다큐 주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나요? 그리고  
그 주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투 운동을 다뤘습니다. 미투 운동 관련 기사를 보았을 때,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함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포함하여 다른 인권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함양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 영상 제작은 혼자 진행 하셨나요?

기획은 혼자 세웠고, 아직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해  
영상의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줄  
팀원 한 명이 있습니다.

- 영상을 찍기 전 어떤 준비를 했나요?

관련 기사 열심히 찾아보고 어떻게 구상할지 생각했습니다.

- 다큐멘터리는 직접 취재가 필요한데 직접  
취재를 하셨나요? 취재하며 재미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겪은 일들을 얘기해 주실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인터뷰하러 부산에 갔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집에 와서 파일을 확인해보니,  
마이크가 고장이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다시 부산에  
인터뷰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섭외가 정말 힘들어요.  
아직도 섭외 덜 끝냈습니다.

- 꽤 의미 있는 영상 제작인 거 같은데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땐,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나올 것이라는  
느낌이 매 순간 듭니다





# 가성비는 가라!

가격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 하지만 2018년엔 가성비는 가라! 가성비가 최고!

가성비는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로 가성비도 잡고 심리적인 만족감도 잡는 걸 뜻합니다.

현대판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아닐까요? :) 에코에서 소개하는 가성비 제품! 마음도 두 손도 무겁게 구매하러 가봅시다!

## 1. OST 디어마이유니버스 X 루봉슬라임

OST 6월 신상 디어마이 유니버스(Dear my univers), 우주라는 콘셉트에 맞게 신비한 색인 보라색 패키지에

'별빛이 반짝'이라는 문구와 함께 별이 그려져있으며 주얼리도 우주의 여름밤을 메인 콘셉트로 달과 별을 모티브로 하였고

시계는 핑크와 스카이 블루가 섞인 배경에 별과 달이 시침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대망의 루봉 슬라임과의 컬래버레이션인 슬라임은 하트 패키지에 누구나 놀기 쉽게 제작된 뽕은 제형에 핑크색과 보라색의 슬라임이다.

컬래버레이션을 위해 수량한정에 특별 제작 슬라임으로 예쁨과 동시에 재미까지 한번에 잡을 수 있다.



## 2. 바다판타지 신바네편

비누 향의 다양함을 담은 퓨어 라인 바다판타지와 인기 캐릭터 바바파파의 콜라보 바다판타지의 퓨어라인은 방금 샤워하고

나온 듯한 깔끔하고 깨끗한 비누 향기를 연출할 수 있는 라인이다. 바바파파와 콜라보 한 제품은 총 5종으로

'히즈 클린 런드리', '에메랄드 셔벗 판타지', '소프트 클라우드 판타지', '퍼플 코튼 판타지', '베이비 샴푸 판타지'이며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거 같으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올리브영으로 가서 구매를 하면 될 거 같다.



## 3. 위너 X 키엘

아이돌 위너와 키엘의 콜라보. 하지만 단순한 컬래버레이션이 아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키엘의 도심 속 자연을 가꾼다는 의미의 네이처앤더시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 쓴 공병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천 원의 기부금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칼렌둘라 꽃잎 토너의 용기의 일러스트를 위너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니 놓치면 손해! 자연도 가꾸고 위너의 리미티드 에디션도 가지고 일석이조의 진정한 컬래버레이션이 아닐까?



## 4. TNGT X 삼양식품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먹지? 우리가 매일 하는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난 것이 있다.

바로 삼양식품과 TNGT의 컬래버레이션. 삼양식품의 대표 상품들을 의류제품에 특징을 잘 녹여내 재치 있게 풀어냄.

옷장을 열어 툭툭 튀는 개성을 보여주고 싶으면 한번쯤 이 옷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 눈물버튼을 자극하는 드라마·웹툰

## WEBTOON



나빌레라 다음웹툰, 글 Hun | 그림 지민

발레리노라는 같은 꿈을 꾸는 일흔의 할아버지와 스물셋의 청년의 이야기이다. 작가가 도대체 인생 몇 년 차길래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독자들의 놀라움이 가득한 웹툰이다. 포근한 그림체와 인생을 관통하는 할아버지의 명언들 덕분에 단행본 소장도 추천한다. 만화를 넘어 인생 견습서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웹툰은 두고두고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다.



죽음에 관하여 네이버 웹툰, 글 시니 | 그림 혀노

옵니버스식의 스토리이고 눈을 떠보니 죽은 몸으로 신을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된다. 죽음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누구는 억울해 울고, 누구는 남겨진 이들을 걱정하고 누구는 후회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결국 끝은 맺어진다. 제목처럼 죽음에 관하여 생각해보게 되는 웹툰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생웹툰으로 유명한 만큼 모든 화가 몽클한 여운을 준다.

학기 중 바쁜 일상으로 눈물샘이 메말라 버렸다면,  
방학동안 정주행 할 만한 감동적인 작품을 찾는다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시간도 순식간에 흘러가게 할 만한 드라마 웹툰을 소개한다.

## DRAMA



부탁해요 엄마 KBS2 2015.08.15

양속 같은 모녀지만 결국 엄마를 닮은 나를 발견하고 되돌아보는 스토리이다.  
엄마와 싸워본 적 있는 딸들이라면 다 공감되지 않을까?  
거기다 국민 엄마 고두심의 연기라니.. 눈물 흘리는 건 당연.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나면 엄마에게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질 것이다.



디어 마이 프렌즈 TVN 2016.05.13

우리도 시간이 흘러 흘러 그들의 나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까?  
또 그들은 우리 젊은 청춘에 대해 얼마나 알까?  
드라마의 의도처럼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거리감을 좁혀주는 드라마라 생각된다.  
여전히 '살아있는 황혼 청춘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어느새 그들과 친구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라이브 TVN 2018.03.10

기존의 사건중심적 경찰 드라마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들의 이야기에 공감과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등장인물들의 연령이 다양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아들딸은 마치 내가 홍일지구대의 열정 넘치는 시보가 된 기분을,  
엄마아빠는 어린 후배들을 가르치고 연륜이 많은 경위, 경감에게 감정이입이 될 것.



# 아보카도 요리레시피

뜨거운 햇빛 아래 걸어 가다보면 냉장고 한 칸에 넣어둔 시원한 과일들이 생각난다.

초록색 줄무늬에 속이 새빨간 수박, 노오란 껍질에 속은 하얗고 씨가 딱 찬 참외.

그 알록달록한 과일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아보카도. 오늘 나는 이 아보카도를 꺼내 요리를 하려고 한다.





## 재료                      만드는 방법

완숙 아보카도 1개,  
 토마토 1개,  
 양파 1/2개,  
 레몬 1개,  
 마늘 3~4쪽,  
 소금 적당량,  
 후추 약간

1. 아보카도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떠낸다.
2. 볼에 아보카도 과육을 넣고,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짜 넣은 다음 덩어리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으갠다.
3. 씨를 제거한 토마토와 양파, 마늘을 잘게 다진다.
4. 볼에 잘게 다진 토마토, 양파, 마늘을 넣고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짜 넣은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하여 잘 버무린다.

아보카도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단백질,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슈퍼푸드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숲속이 버터라고도 불린다.





## 아보카도 파스타

### 재료

아보카도, 작은 마늘 2개, 레몬 1/2개, 달걀노른자, 생크림 1/2컵, 베이컨 3줄, 스파게티 면, 올리브오일

### 만드는 방법

1.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다.
2. 믹서기에 아보카도, 작은 마늘, 레몬, 달걀노른자, 생크림 반 컵을 넣고 갈아준다.
3. 베이컨을 잘라 프라이팬에 굽는다.
4. 냄비에 물과 소금 1 작은 술을 넣고, 물이 팔팔 끓을 때 스파게티 면을 넣는다.
5. 삶아진 면을 넓은 그릇에 담아 믹서기에 갈았던 크림소스와 함께 버무린다.
6. 올리브오일 3 큰 술과 베이컨을 넣고 함께 버무린다.
7.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파마산 가루를 넣어 마무리한다.



# 당신을 위한 FESTIVAL

모두들 2018년을 바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처음 만난 나의 20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누군가. 바쁘게 보낸 봄도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중이에요. 바쁘게 지낸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을 선물하는 건 어떠세요? 여름에 안성맞춤인 휴식 보내기, 저는 여름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휴식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걸 잊고 신나는 노랫소리에 맡기고 노는 것도 좋은 휴식이 아닐까요? 그럼 ECHO가 여름 페스티벌을 추천해드릴게요.

**PARKMUSIC FESTIVAL!**  
2018. 6. 16-17  
Lee Sara / Nell  
Lee Sara / Nell  
Jarrah Nilsson / Kha & The Faces  
STRFKR / Buzz / Jung Joonil  
Roy Kim / Jang Jang / Heize  
Yang Da He / Sweden Laundry / Fromm  
Yun Djan Djan / Cheese / O.Wen  
Lee Sangmin Group / Shin Myungsoo Group  
We Are Young / Blue Paprika  
Lips-Bite / Grizzly  
Monogram / Dave Beck

OLYMPIC PARK at 8888  
PHF PARK MUSIC FESTIVAL

‘올스타 유즈컬 프레젠테이션 파크 뮤직 페스티벌’

맥주 필스너 우르켈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공원+음악+맥주=힐링을 콘셉트로 하는  
도심속 공원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뮤직 페스티벌이다.  
본 공연은 19세 이상 관람 가능한 공연으로  
당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제시하여야 한다.

2018.06.16 - 2018.06.17.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Urban Music Festival**  
7.21 (SAT)  
7.22 (SUN)  
7.23 (SUN)  
2018.07.21(SAT) - 23(SUN)  
세종대 컨벤션홀 및 대양홀 일대

‘어반뮤직 페스티벌 2018’

그래도 난 무더운 여름이 싫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페스티벌과는 다르게  
실내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이다.  
스탠딩 존인 어반 뮤직 스테이지와  
좌석 존인 시티라이트 스테이지로  
구성 되어 있다.

2018.07.21 - 2018.07.22.  
세종대 컨벤션홀 및 대양홀 일대

**GS25 MUSIC & BEER FESTIVAL**  
20180804  
KINTEX  
이적 다이너믹듀오 크러쉬 경업\*영준  
더콰이엇 10CM 헤이즈 정준일 윤하  
창모 해쉬스원 김효은 마이크로닷 식케이  
팔로알토 허클베리마 크루셜스타  
윤민안 김나영 전지은 키범 제리콧  
D.패즈 D.자다 & 말빌런스 D.애니  
정진우\*가호 MC로라담

‘GS25 유직앤비너 페스티벌’

GS25가 준비한 화려한 맥주파티.  
참여방법은 따로 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GS25에서 이벤트 응모상품을  
BC카드 구입 후 응모를 하면 완료!  
응모 횟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한다.

2018.06.16 - 2018.06.17.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 여름 싫어! 여름 대비 아이템

여름에는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들도 존재하지만 더위, 땀, 모기 등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도 생겨난다. 그것들에 맞서기 위해 에코가 독특한 여름 아이템들을 준비해봤다.



효과 ★★★★★

1. 슈퍼클링 파우더 시트      가격 ★★★★★

목 뒤, 팔다리가 접히는 부분 등 여름철 땀이 많이 나는 부분에 문질러주면 시원한 클링감과 함께 갓 씻은 듯한 보송보송함을 선사한다. 파우더향과 시트러스향 두 종류이며 올리브영에서 구입할 수 있다.

15매에 2800원.



효과 ★★★★★

2. 스위트롤      가격 ★☆☆☆☆

얼굴 전용 제품으로 자기 전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문질러주고 자면 다음 날 얼굴에서 땀이 안 난다는 신기한 패드.

유지기간은 하루정도이며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강력한 효과만큼 부작용 조심! 1매에 4000원.





**3. 네오큐 훈증기&모기매트**

효과 ★★★★★☆

가격 ★★★★★☆

집 안에서 모기향을 피울 수 없을 때, 훈증기에 모기매트를 넣어 스위치만 켜주면 깔끔한 실내 모기향 완성!  
 가격은 각 3000원, 1000원이며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약국에서 사는 것 보다 약 3배 정도 저렴하다.



**4. USB 훈증기**      효과 ★☆☆☆☆  
 가격 ★★★★★☆

큰 훈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순 없으니 대체품으로 USB훈증기가 나왔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로 보조배터리나 노트북에 꽂아 주기만 하면 된다.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더라도 휴대성만큼은 최고!



**5. 물구멍 방충망**      효과 ★★★★★  
 가격 ★★★★★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창틀에 있는 작은 물구멍으로도 벌레들이 들어온다고 한다.  
 여기에 물구멍 방충망 하나만 붙여주면 벌레 없는 쾌적한 실내를 만들 수 있다.  
 다이소에서 1000원(10매입)에 구입할 수 있다.

미니 선풍기, 데오드란트 등의 여름 기본템을 넘어서 좀 더 신박한 아이템을 찾고 있었다면,  
 에코에서 알려주는 독특한 여름 아이템들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 술술 흘러들어가는 술

일교차가 심한 6월, 우리의 기분까지 가지고 논다. 낮에는 너무 더워 화를 부르고, 저녁에는 선선해 행복감을 부른다. 저녁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게 한잔! 무더운 여름에는 느낄 수 없는 선선한 저녁을 술로 즐겨보자!



## 1. 동동주

술이 부드러워 목구멍으로 술술 들어간다. 시큼한 끝맛은 안주를 찾게 하는 요소! 뜨끈한 파전과 함께 동동주를 즐기는 그 순간 우리는 무릉도원에 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 2. 막걸리

꾸덕한 막걸리에 사이더를 넣어 달달하게 만든다면 이처럼 맛있는 술이 어디 있을까 최근 다양한 맛의 막걸리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진다. 갓나온 두부와 볶음 김치를 먹은 후 달달하게 입을 헹귀 준다면 이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 3. 심술

이름에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일단 마셔봐라. 달달한 매실음료를 연상하게 하는 맛이다. 어떤 안주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다면 답할 수 없다. 어떠한 안주와 다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 4. 화소

묵직한 느낌의 술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에 독이 된다. 다른 술과 다르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이다. 비슷한 술이 있다면 정종과 비슷하다. 하지만 더욱 가볍고 부드러워 새로운 느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연어와 먹는다면 인생 잘 살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이다.





## 여름 밤 듣기 좋은 뉴에이지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벌써 밤공기는 전처럼 차갑지 않고 선선하게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밤에 산책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요즘  
밤 공기 쉼터 가볍게 산책할 때 들으면 더욱 좋을 뉴에이지 몇 곡을 추천해본다!



우리는 오늘도 가사 없는 노래에서 목소리를 듣는다.

### Hisaishi Joe - Summer



일본 애니메이션계 음악가로는 최고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히사ishi 조의 명곡들 중 하나. 제목 그대로 여름에 듣기 딱 좋은 곡이다. 가볍고 경쾌한 피아노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곧 다가올 한여름도 미화될 만큼 상쾌하고 청량해지는 기분!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뉴에이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 Radwimps - Sparkle



영화에서는 가사가 있었지만 가사 없는 버전도 엄청나게 매력있다. 멜로디 자체가 환상적인 느낌이라 별 노력 없이 자기전에 들어도 쏟아지는 별뿔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황홀해진다.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마다 확연히 감정이 갈리는 음악. 누군가는 슬프다고 하고 누군가는 힘이 난다고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황홀하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추천해본다!

### Radwimps - Theme of Mitsuha



여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 하나인 첫사랑, 그리고 그 아련한 느낌이 그대로 실려있는 곡이다. 곡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몰랐던 내 기억 지편의 한 페이지를 불러 오는 것 같다는 흔히 말하는 '기억 조작곡'처럼 우리들의 사춘기 시절 소년, 소녀의 감정을 확 터뜨리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여름 밤에 문득 드는 울컥한 감정이 멜로디가 된다면 이럴 것 같다.

### Bird - Blue Sea



엄청 유명한 연주자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매력이 되는 것 같다. 배경에 살짝 깔려있는 파도 소리가 더욱 운치있게 만들어준다. 다른 곡들이 감정을 울렁이게 한다면 이 곡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곡. 밤바다, 또는 바다에 가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들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색 아이스크림 추천

여름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레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된다.  
매일 먹는 아이스크림이 질릴 때쯤,  
에코와 함께 이색 아이스크림들을 찾아보자!

## 2. 메로나 칸탈루프

칸탈루프 멜론은 일반 멜론보다 노랗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기존 메로나와 다른 독특한 맛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기간 한정 제품이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 유명한 '올 때 메로나' 문구가 포장지에 새겨져 있다.

## 1. 로투스 콘

2018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스크림이다.  
계피향이 나면서 달달한 맛의 인기 수입 과자  
'로투스'를 아이스크림으로 구현했다.  
아이스크림 위에 달콤 짭조름한 로투스 과자가 솔솔 뿌려져 있다고 한다.







### 4. 박카스향 소르베

국민 피로해소제 박카스가  
 동아제약과 베스킨라빈스의 콜라보로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했다.  
 지금은 잠시 볼 수 없지만  
 수능시즌을 기념해 만들어졌으니 수능  
 시즌 재출시를 기다려 보자.

### 3. 죠스바 백상아리



오래 전에 출시되었다가 단종된 후  
 슬그머니 다시 나왔다고 한다.  
 맛은 오리자널과 별 차이 없지만  
 백상아리 죠스바는 다 먹고 난 후에도  
 혀와 입술이 빨갛게 물들지 않는다고 한다.



### 5. 비락 식혜바

음료로 마실 때 보다는 맛이 연하지만  
 깔끔하니 맛있다는 후기가 많다.  
 겉은 딱딱한 아이스크림,  
 속은 자갈한 살얼음이 들어가 있다.  
 오직 CU 편의점에서만 판매한다.



### 6. 거꾸로 수박바

수박바의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시된 아이스크림.  
 수박바는 사실 수박맛이 아닌 딸기향과 멜론향이 첨가된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초록색 부분이 딸기맛, 빨간색 부분이 멜론맛이라고 하는 반전이 있다.  
 이것도 CU 전용 제품으로 CU 편의점에서만 판매한다고 한다.



# 백설공주가 아니여도 괜찮아

모든 사람의 피부색은 아름답다.

우리는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요즘이야 다양한 호수의 베이스가 나오지만  
여전히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  
제품들도 잘 팔린다.

우리 모두 백설공주처럼 될 필요는 없다.  
21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햇빛에 그을린 대로, 건강한 매력의 구릿빛 피부를 가진  
셀럽들의 메이크업을 참고하자.







미국적인 매력과 탄탄한 몸매로 핫한 그녀 **구기영**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에도 불구하고, 과해보이지 않는 이유는 과감하게 생략한 속눈썹 마스크라와 립 메이크업 때문

eye 그린렌즈와 잘 어울리는 스모키메이크업  
base 스모키한 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셰이딩  
lip 약간 핑크색이 도는 MLBB 누드립



**유영** 구릿빛 피부에는 과즙 메이크업을 못한다는 편견을 깬

그녀의 일상사진에서도 블러쉬와 립은 꼭 빠지지 않는다

eye 소녀스러운 코랄빛 아이샤도우가 포인트  
base 아이샤도우와 비슷한 채도의 치크  
lip 그녀의 시그니처인 오렌지 레드 풀립





# 김희정 묘의정

스트릿 댄서이자 배우 김희정은 음영 메이크업을 즐겨한다. 비교적 따라하기 쉬운 메이크업이지만 구릿빛 피부이기에 유독 트렌디해 보인다.

- eye 긴 속눈썹을 강조한 음영 메이크업
- base 입체적인 얼굴을 위한 확실한 하이라이팅
- lip 입술이 더 도통해 보이는 글로시한 립글로즈





더운 여름 우리의 가벼운 옷차림에 혜성처럼 나타난 소재가 판을 치고 있다. 바로 PVC!  
PVC가 무엇이기에 지금 패션계를 흔들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플라스틱의 대표인 PVC는  
원래 딱딱한 물질로 프탈산계  
(phthalates, 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  
(adipates, 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인 뒤 제품화된다.

26) it seems that  
has no colour, (2)  
why is the sea blue  
because it reflects  
colour of the sky.

OR

100% Original  
Do not wash it.  
Please wipe gently.  
Wipe to fire.





유연성과 탄력성을 획득한 PVC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답답한 가죽 보다 투명한 가방을,  
속이 훤히 보이는 PVC 가방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안에 넣는지에 따라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

이번 S/S 컬렉션에서 많은 브랜드 들이  
PVC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런웨이에 세웠다.  
PVC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니 백부터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챙이 있는 모자,  
샤넬에서 출시한 PVC 모자는 많은 셀럽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컨버스와 오프화이트의 협업으로 탄생한 척테일러까지  
올여름 우리도 PVC 제품으로 우리의 개성 넘치는 코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VOL.16



現像所  
HIGHLIGHTS

# 오자크 나에게 6월이란



Editor

김나영 | 압여름준비

김고은 | 배움의연속

김가희 | 다음달생일

공유나 | 벌써종강임

손민경 | 잉여의시간

우혜정 | 짜증이난다

김윤지 | 종강집가자

손현아 | 아쉬운계절

손민정 | 쉬고싶은달

권재승 | 하이라이트

이다혜 | 6월이지뭘

전명주 | 과제의연속

이경연 | 너무덥다요



Designer



# ECHO

